

精油産業과 國民의 視角



裴 秉 休

〈每日經濟편집국차장·週刊每經副編輯長〉

感度 떨어진 쇼킹뉴스

얼 마전까지 제일 무서운 뉴스가 기름값이었다. 기름값이 한번 오르면 전 산업이 추위를 타고 전 국민이 부들부들 떨었다.

우리는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야속한 운명이라고 자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석유뉴스의 感度가 많이 떨어졌다. 석유값이 무서운 존재인 것은 여전하지만, 종전처럼 맥 못쓰고 혼비백산할 만큼 충격적이지는 못하다.

우리는 석유값 때문에 많이 당해오면서 차차 면역도 생기고 저항할 힘도 생겼다.

그 사이 産油國의 지위에도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70년대초 세계인의 운명을 한 손에 쥔 듯한 기름장사들의 콧대도 어지간히 꺾였다.

국제 원유값은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큰 소리쳤지만 소비가 줄어들자 오히려 산유국이 먼저 궁색을 떨었다.

한 배럴에 30달러를 넘어섰던 원유값이 20달러 선으로 제풀에 떨어진 지난 해까지의 상황 한가지만으로 산유국이나 메이저의 독선이 거의 종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국제 원유값이 폭군처럼 뛰어오를 때 국내 석유업자들을 공포의 하수인으로 인식했다. 그

들은 아무도 기름을 가지지 못한 처량한 대중위에 유일하게 기름을 가진 자로 부각되었다.

그래서 메이저의 앞잡이로 보기도 했고, 없는 자들 위에 군림하는 모리배로 찍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석유업자들의 입장도 흥청거릴 수 있는 종래의 잔치기분이 싹 가셨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 चु프고 고달픈 신세로 역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왜 産油國의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국내 석유업자들의 입장이 갑자기 처량해졌을까?

그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했지만, 산유국은 소비국을 협조자나 거래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피지배 계층으로 너무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석유업계는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영원한 시너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업계가 소비자를 공개적으로 깔보거나 무시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만한 心情은 모든 소비자의 인식속에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석유업계의 이미지는 벌써 이 땅을 떠난 美國의 걸프오일로부터 많이 결정지어 졌다.

걸프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韓國시장에 국민처럼 초빙되어 18년간이나 많은 공헌을 남겼고, 동시에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 맛볼 수 없는 군림을 즐겼다.

그러나 걸프가 마음내키지 않는 상태로 불유쾌

하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철수한 교훈은 전체 석유업계의 이해와 크게 관련된다.

5.16혁명후 걸프가 별로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韓國상륙을 결심한 것은 한국민에게 대단히 고마운 지원이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걸프는 남의 은혜를 크게 갚고자 하는 韓國人들을 너무 만만히 보고 너무 멋대로 방종을 떨었다. 韓國에서의 걸프 전성기적 이야기지만, 美國본사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걸프인들은 청와대로 가서 최고 통치자를 먼저 만나곤 했다. 그리고 석유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나 국장에게는 그들의 의사를 통고하는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켜왔다.

걸프는 초창기 합작투자자와 차관공여조건으로 원유공급에서부터 운송권과 기술용역권 등을 독점하고 石油會社의 인사와 재정 등 전반적인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같은 지나친 독세가 걸프의 수명을 단축했을 뿐더러 뒤에 국제 석유 정세가 완화된 후 철수를 종용하는 정부의 방침앞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인사말도 듣지 못했다.

걸프가 쫓겨나던 날의 풍경은 마치 이혼녀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형국이었다. 그들은 9 천여만달러 상당의 마지막 주식대금을 챙겼지만,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 걸프가 보여준 서글픈 모습은 국내 전 석유업계에 우울한 소식으로 전해졌다. 석유장사란 누구를 예쁘게 보고 누구를 업수이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었다.

6 조원의 종이 호랑이

오늘의 産油國이나 국제 석유재벌들은 결코 세계경제의 지배자는 못된다.

그들은 세계경제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망정 자기 뜻대로만 세계경제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국내 석유업자들은 자신들이 韓國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봉이 김선달식으로 손쉽게 물장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다.

국내 석유업계는 대체로 6조원산업으로 일컬어진다. 한 회사의 매출액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油公도 있고 수천억원에 불과한 후발회사도 있다.

어느 회사나 석유장사의 외형이 놀라울 만큼 큰 것은 어느 업종보다도 매력이다.

그러나 6조원 산업은 따지고 보면,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이윤율은 고사하고 정기적인 원가보상을 받기에도 많은 눈치를 보고 논쟁을 거쳐야만 한다.

석유업자들이 이처럼 설움을 받는것은 잘된 일도 아니지만, 불가피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大韓石油協會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중 석유업계의 순익은 2백44억원으로 최소 적정이윤에 비해서는 6백94억원이 미달됐다고 한다.

이는 2천3백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 이익 1백88억원, 지난 81년도 원가상승분의 유보에 따른 손실액 1백55억원, 그리고 지난 해 상반기 기름값 조정시 미상각액 5백95억원을 감안하면 이익이 나기는 고사하고 결손을 보았다는 계산이다.

석유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石油協會 주장을 덮어 두더라도 6조원산업은 허울좋은 외형 빵튀기 산업에 속한다.

지난 80년 이후 3년간 석유업계의 매출이익율은 평균 마이너스 0.11%로 나타났다. 석유업계의 매출이익률에서 결손을 보고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화력발전이나 유탄유와 같은 관련부문에서 이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경영구조하의 국내 석유산업을 공포의 물장사로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본 에너지원 산업이 이 모양으로 속이 빈 채로 놔두어서 괜찮겠느냐는 동정이 앞설 지경이다.

정유회사별로 지난 해 연간 예상매출액은 油公 2조7천억원, 湖油 2조3천억원, 그리고 京仁和 쌍용이 각각 5천5백억원, 極東 1천7백억원, 도합 6조 2천7백억원에 이른다.

또 회사별 예상이익은 油公만이 3백억원의 당기순익을 나타내고 湖油和 京仁이 각각 2백억원, 雙龍 60억원, 極東 10억원의 결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유화학이나 발전부문과 같은 부대사업이 없었다면 油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個社가 현상유지마저 하지 못하리라는 비관적인 결론이다.

지난 70년대를 통해 무던히도 속을 썩혀주던 석유업자들을 두둔해 줄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외형

만 보고 과거의 허물을 계속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公益산업에 대한 새 인식

오늘의 석유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면에서 보면, 6조원산업이 왜 허덕이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우선 석유산업은 달러貨변동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 정유위주이기 때문에 換差損에 대한 보상이 운명을 좌우한다.

환율 1%가 오르면 기름값은 1.2%나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를 즉각 판매값에 반영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름값 구성비중 81%상당을 원유값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를 잘 해도 원가의 81%는 석유업자의 조정 밖에 있다는 셈이다.

나머지 9%도 정제비와 금융비가 차지하여 기업이 손 댈 수 있는 부문은 극히 제한된다.

제품원가의 90% 이상을 원료값이 차지한다는 것은 석유업자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국제 원유시세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게다가 정부가 원유도입에 개입하여 원료값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구매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도 괴로운 소식이다.

정책원유로 불리는 정부 입김하의 도입원유는 순수 상업베이스에 의한 도입분보다 가격이나 결제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원유중 정책도입액이 20%에 상당한다는 통계는 석유업자로 하여금 원가관리에 너무나 큰 부담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된다.

정유시설면에서도 석유업계가 안고 있는 짐보마리가 너무 과중하다.

5個社の 1일 정제능력은 79만배럴인데 반해 현재의 가동률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대체로 거대한 시설은 유지·보수를 위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만, 적정가동률이라면 70%는 넘어야 하고 80%까지 가동해도 좋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업계는 최소 20% 상당의 잉여시설을 안고 있는 셈이다.

초기 油公의 蔚山공장이 1일 3만5천배럴로 시작

하여 국내 전체시설이 무려 79만배럴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값비싼 외자로 건설한 정제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기본 같아서 업계가 왜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과잉투자를 했느냐고 சொ아불이고 싶지만, 워낙 변동이 잦은 석유사정을 감안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기름으로 갔다가, 석탄으로 왔다가 형편따라 갈팡질팡하는데 한쪽만 잘못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어쨌든 정제시설이 남아돈다는 것은 막대한 외채 부담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민적 걱정거리에 속한다.

그렇다고 석유소비를 권장하자거나 석탄개발을 억제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비록 석유정제 시설이 남는 한이 있어도 기름소비는 절약되어야 하고 석유업계의 경영수지가 좋지 않더라도 국내 석유값을 올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지금은 기세가 꺾였다고 하나, 기름값이 제조업의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절대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름값 인상을 빙자하여 너도 나도 값을 올리려 들 것을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과거의 경험이 되살아난다.

따라서 공익산업에 속하는 精油産業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융통성을 보일 때가 온 것 같다.

국제 원유수급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업베이스에 의한 도입원유가는 경쟁을 통해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가격정책에서는 자신없이 직접통제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에 맡겨 경쟁을 통한 새로운 가격질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산업이나 적정이익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국가 기간산업에 최소 자본 이익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정책상으로 우려할 사항이다.

지난 해의 경우 외형 6조원이 넘는데 稅前이익이 2백30억원이라는 통계는 오늘의 정유산업이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精油産業을 종이호랑이로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